



Bridge, Beyond, Business

2025 지속가능성 5대 핵심 트렌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딜로이트는

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공식 지식 파트너로서,

APEC 회의에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5년 딜로이트가 주목한 지속가능성 5대 핵심 트렌드

딜로이트는 지난 1년간 지속가능성 트렌드의 흐름을 조망하였으며, 기업 경영에 의미 있는 지속가능성 트렌드 5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rend 01

지속가능 소비

지속가능성 요구를 이끄는 사회적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을 촉진



Trend 02

순환 경제

자원 중심의 지속가능성 실행 전략

자원 효율성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접근



Trend 03

에너지 전환

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략

청정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 산업 전환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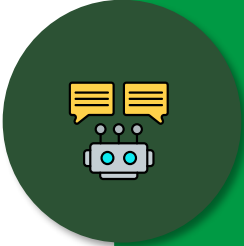


Trend 04

글로벌 규제

지속가능성 확산을 가속하는 외부 압력

EU 중심의 규제가 기업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



Trend 05

AI/첨단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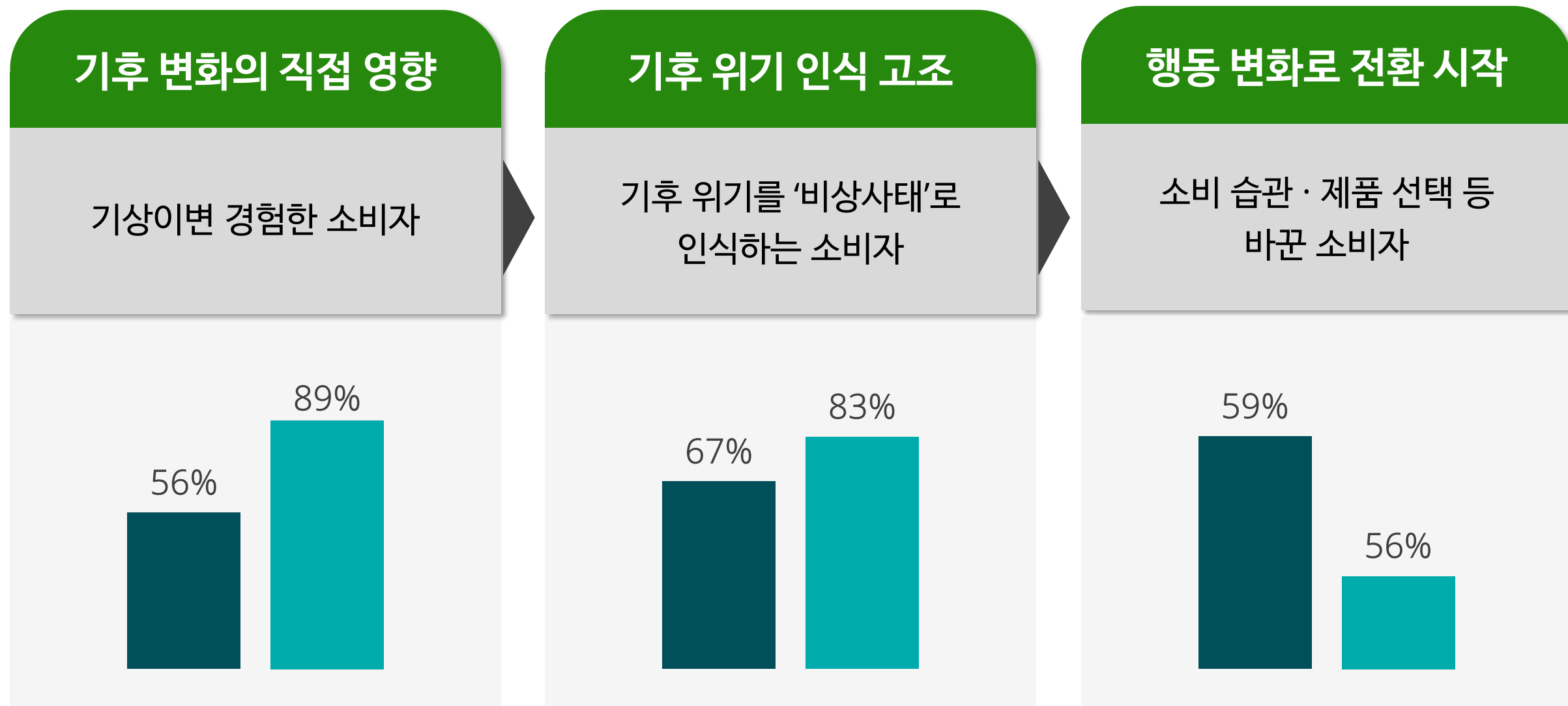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전략 실행의 핵심 수단

AI를 통한 성과 측정, 공시, 실행력 강화

지속가능 소비 - 기후 인식 고조, 소비 행동으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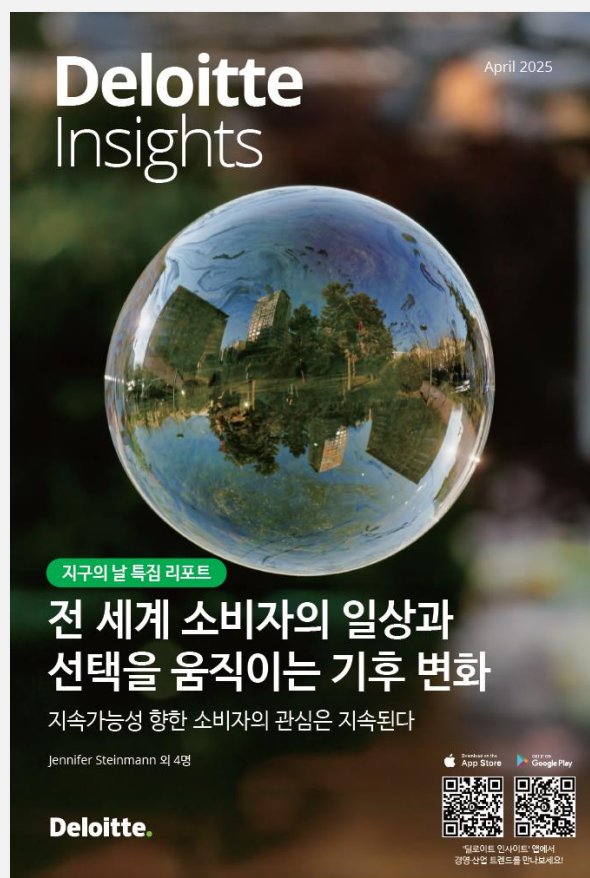
딜로이트 컨슈머시그널(ConsumerSignal)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의 67%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59%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습관과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 글로벌 ■ 한국



(참고: 2024년 9월 한국 포함 주요 17개국 17,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Insights Reports



• 기후 변화, 소비자의 일상에 실질적 영향

- 전 세계 응답자의 56%, 최근 6개월 내 기상이변 경험
- 한국 응답자 89%가 이상기후 경험 (2021년 대비 28%p 상승)

• 높은 위기의식이 소비자 행동 변화로 점차 확산 중

- 67%가 기후 변화를 '비상사태'로 인식 (한국은 83%)
- 전체 응답자 중 행동 변화 실천 비율: 글로벌 59%, 한국 56%

• '두려움' 느끼는 한국 소비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서적 기반 형성 중

- 기후에 대해 느끼는 감정 중 '두려움' (62%), '결의' (59%) 두드러짐
- 이러한 소비자 정서는 소비자 행동 변화 촉발할 가능성 높음

순환경제 - 비용 절감 넘어 경쟁 전략으로

자원 비용 상승, 공급망 리스크,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순환경제를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얻는 효과

장기 경쟁력 확보

- 자원 가격 급등, 공급망 리스크, 규제 변화 등에 대응
- 지속가능한 설계·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혁신 유도

새로운 수익 기회 창출

- 재생 가능 자원, 역물류, 수리·재사용 등 신사업 확대
-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와 시장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지속가능성 이행 및 투명성 향상

- 순환경제 지표 도입으로 내부·외부 이해관계자에 책임성 있는 경영 실현
- ESG 공시 및 인증 체계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 가능

공급망 회복력 강화

- 지역 기반 자원 활용으로 해외 의존도 축소
- 협력적 가치사슬을 구축해 자원 최적화 및 위험 분산

Insights Reports



• 순환경제 전환, 여전히 갈 길 멀다

- 경제 투입 자원 중 재활용 자원 비중인 전 세계 순환성 지표 7.2% (2018) → 6.9% (2021)로 하락

• 순환성 향상 여지, 자원 재활용에 달려 있다

- 매립 예정 신규 비재생 자원은 전체 투입량의 18.1%
- 미재활용 폐기물까지 재활용할 경우 순환성 지표 약 25%까지 상승 가능

• 기업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

- 지속가능성·비용 절감·공급망 리스크 대응 위한 핵심 전략
- 순환경제 전환은 자원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회복력 확보로 이어짐

에너지 전환 – 청정에너지 전환, 수소가 이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청정 수소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 에너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지속가능성, 기술 경쟁력을 갖춘 수소는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 동향

- 아태 수소 시장이 2050년 1.2조 달러로 급성장해 글로벌 시장의 절반 차지 전망
- 전해조, 저장, 터빈 기술에서 특허 점유율 70% 이상
- 현지 그린 수소 생산이 총공급의 85% 이상 차지해 경제성 확보 가능

아·태의 기회와 과제

- 호주·동남아 국가, 수출 허브로 성장 가능성 큼
- 아태 지역 수소 경제 위해 향후 25년간 3.2조 달러 투자 필요
- 탄소 배출 검증 체계 부재, 국가 간 조율, 입찰 일정 통합, 비용 대비 감축 효과 불확실성 등 과제 산적

전략적 시사점

- 지정학적 안정성 확보가 수소 무역 확대의 핵심
- 정책 지원 및 보조금 체계 강화 필요
- 다자간 협의체·거버넌스 구축 중요
- 기술 상용화 및 생산-운송-저장 인프라 구축 필요

Insights Reports



• 청정 수소는 아태 탈탄소화의 필수 조건

- 철강·화학 등 산업 중심으로 수소 수요 급증
- 아태 지역 수요는 2030년 6,700만 톤에서 2050년 2.35억 톤으로 증가

• 아태 수소 시장 기회는 크지만, 막대한 투자 필요

- 아태 시장 규모 2030년 5,500억 달러에서 2050년 1.2조 달러로 증가
- 중국과 인도가 최대 투자국으로 꼽히며, 호주는 수출 인프라에 집중

• 무역 확산 위해 제도·정책 조율 필수

- 수소 무역 성공 요건: 지정학적 안정성, FDI 간소화, 인증 체계 등
- 한국 등 주요국, 총 445억 달러 규모 정책 인센티브 발표

글로벌 규제 대응 - 글로벌 ESG 규제, '부담' 에서 '전략' 으로

EU를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제가 고도화되면서, 규제 대응은 단순한 준수 차원을 넘어 사업 전략과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지속가능성=경쟁력

- 과거: 지속가능성 정책 = 기업에 비용 부담 주는 '의무'
- 현재: 지속가능성 정책 =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도구

규제 방식 변화

'엄격함' 보다 '실행력' 중심으로 진화

- 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간소화'와 '재정 지원'을 동시에 추진

기업은 '탄력성과 유연성' 중심의 대응 전략 필요

단순 규제 준수 중심에서 벗어나
"이 규제가 우리 산업의 어떤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

Insights Reports



• 정책 방향 변화: 경쟁력 중심의 지속가능성 전략

- EU는 지속가능성을 단순 규제가 아닌 산업 성장·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
- 청정산업협약·순환경제법 등을 통해 실행력 중심의 산업 전략 추진

• 규제 단순화와 유연한 공시 요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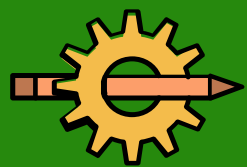
- CSRD, CSDDD, CBAM 등 기존 규제 적용 대상 축소 및 유예 조치 확대
- 연간 63억 유로의 행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Omnibus Package 발표

• 기업 대응 전략: 회복탄력성 기반의 유연한 전환

- 데이터·기술 역량 강화 → 지속가능성 데이터 책임자 지정 권고
- 가치사슬 기반 분석과 대응 → 공급망의 단계별 대응체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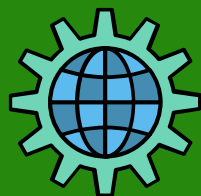
AI 기반 ESG 데이터 분석 - 전략 실행의 핵심 수단

ESG 데이터의 수집, 분석, 공시가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은 AI 기반 기술 솔루션을 활용해 지속가능성 전략을 더 정교하게 설계·추적·실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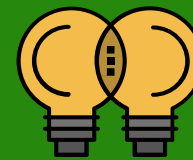
첨단기술, ESG의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

- 전 세계 기업의 81%, ESG 분야에 AI 활용 중
- 첨단기술은 ESG 데이터 수집·분석·실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한국 기업도 글로벌 흐름과 보조

- 한국 기업의 82%, AI 도입 → 글로벌(81%)과 거의 동일
- 기업들은 첨단기술로 공급망 환경 성과 모니터링 중 (한국 55%, 글로벌 53%)



지속가능성 활동의 구체화

- 기술 활용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확산 (한국 55%, 글로벌 52%)
- ESG 성과 추적·측정·공시 위한 기반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

Insights Reports



• 지속가능성, 경영의 핵심 의제로 부상

- 기업 경영진의 45%가 지속가능성을 AI·기술 도입과 함께 향후 3대 과제로 꼽음
-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83%가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를 확대

• AI 등 기술 기반 ESG 실천 확산

- 응답 기업의 81%가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AI 활용 중
-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 솔루션 도입'은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실행 전략으로 자리매김

• 외부 압박보다 내부 전략 중심의 ESG 전개

- 정부·고객 등 외부의 압박은 2022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 (예: 정부 압박 77% → 58%)
- 이제는 외부 압박보다, ESG의 성과 창출과 정량적 측정 역량이 핵심 과제로 전환 중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ESG 통합서비스그룹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남진 파트너
ESG 통합서비스그룹 리더

☎ 02 6676 1997
@ namcho@deloitte.com



Nicola Weir 파트너
CSRD & Global Corridor |
ESG 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3178
@ nweir@deloitte.com



김병삼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탄소중립 기후 기술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099 4277
@ byungsakim@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ESG 공시, 보고서 및 평가대응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연경흠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949
@ kyeon@deloitte.com



유준혁 파트너
ESG 전략 및 탄소배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3096
@ junyoo@deloitte.com



허규만 파트너
ESG 공시 및 Assurance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454
@ kyhuh@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